

2 특별 기획

“후마는 학문다운 학문의 초석을 놓는 일”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
③ 조인원 이사장 대담

2011년 출범한 우리 대학교의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 신문은 15년이 경과한 지금,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문는다. 지난 1회차에선 후마를 바라보는 학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후마를 설계하고 실행한 조인원 이사장(당시 총장)을 만나 15년 전의 상황을 회고해보았다.

※ 지면 제약으로 대담 내용이 편집됐습니다. 전체 내용은 디지털 대학주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타 대학의 교양 교육이 폭넓은 지식 함양에 방점을 둔 것과 달리 후마는 ‘학문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마를 창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은 새로운 사색과 사유의 장을 여는 곳입니다. 학문 그 자체에 대한 근본을 묻고 답하는 곳이지요. 그런 기대로 젊은 시절 대학 공부가 궁금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랐죠. 교수로 재직하게 됐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전공 진입에 앞서 학문함의 진지한 마음 자세와 깊은 사색, 사유에서 오는 배움의 깊이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죠. 학문함이란 무엇이고, 어떤 물음을 물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답을 찾아 나서야 하는지. 사유의 깊이, 인식론과 방법론은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정답을 찾는 공부 아닌 학문함 그 자체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했다. 깊은 삶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주자. 그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후마를 설립하는 계기가 됐죠.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교양교육 전담 독립



지난 15일 우리신문은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과 후마니타스 칼리지 15년의 의미를 두고 대담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권도연 대학주보 편집장, 조인원 이사장.

단과대학’입니다. 단순히 교양 과정을 개편하는 수준을 넘어 왜 단과대학이라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했는지, 당시 이사장님께서 구상하셨던 대학 교육의 본질적 전환은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단과대학이라기보다는 지식의 지평을 연결하는 ‘칼리지’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우리대학은 다양한 단과대학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지식의 출발점은 같다고 볼 수 있죠. 넓게 보면, 인문학과 과학의 공통 분모를 배우고 경험할 때 전공의 깊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단과대학이 아니라 후마니타스칼리라고 명명했던 거예요.

전공 분야엔 분화된 방법론과 인식론이 있어요. 하지만 학문 그 자체를 넓게 볼 때 학문의 저변과 접근 방법, 이를 통해 인간과 사회, 세계를 어떻게 전공 과정과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공 진입 전에 익혀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후마 과정은 여러 단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지요. ‘쉬운 기본’이라기보다는 ‘깊이 있는 학문을 바라보는 사유 방식과 철학’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고등교육, 고등학술 기관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질문에 직접 답을 하면, 후마는 대학 교육의 본질적 전환이기보다는 전공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사유와 인식 능력을 키워 학문다운 학문을 할 수 있는 초

석을 놓는 일입니다.

후마 설립 당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까.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하셨고, 구성원 간 의견 공유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제도와 기구가 만들어진 후에는 일정한 관성과 관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후마 설립 전 이야기에요. 전공 차이로 교양교육에 관한 인식이 달랐어요. 학문함의 근본은 다를 수는 없는 것인데, 인식 차이는 아주 오래도록 좁혀지지 않았죠. 지금도 만일 그렇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이 옳다고 착각하는 듯해요.

후마 설립 당시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공청회도 하고 학생들 얘기도 자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총장과의 대화, 특별 강연과 질의응답 같은 자리에서 학생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후마 출범식 때 일입니다. 오후 5시쯤 끝나서 나오는데 공영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언론 매체에 처음 노출되고 나서 각 언론사 취재도 많았고, 기사 보도도 많았어요. 그때는 인문학의 실용성 문제가 사회 공론의 장에 넓게 퍼져 있던 때죠. 대학 내 우려의 시선도 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뜻있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호응했죠. 돌이켜 보면, 그런 일이 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해요.

후마 출범 당시 설계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죠. 총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초대 학장님과 40~50여 명의 교수님들이 1년 남짓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셨죠. 1박 2일, 2박 3일 워크숍도 마다하지 않고, 타 대학이 부러워했던 훌륭한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안정된 후에도 후마 교육의 깊이를 더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졌어요.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 ‘시민교육’, ‘성찰적 글쓰기’... 그런 교과 범주가 성숙한 학문함과 새로운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 사회 대학가에 유례없던 창조적 과업에 도전한 것이죠. 이와 함께, 학생들의 현장 학습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또 다른 배움의 축인 ‘실천 인문학’을 염두에 두면서 지역사회, 국제사회 현장 학습을 통해 이론과 실재를 결합해 보는 새로운 시도도 하게 됐죠.

설립 당시의 목표 중 하나는 지구적 실천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실천하는 후마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앞서 짧게 언급했지만, 이론과 실천, 학문과 실천, 이런 주제는 엄격

하게 양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기억 속에,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엔 아담 스미스도 있고 카를 마르크스도 있죠. 한 사람은 학문을 주로 한 분이고, 한 사람은 학문과 이에 관련된 실천을 병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두 사상가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크죠. 삶의 현장에 나가 움직이는 것만이 실천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형태의 현장 학습과 같은 활동이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후마에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지역사회 문제를 현장에 가서 리포트도 쓰고 봉사 활동도 하는 그런 활동은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사회 현장, 다양한 문명과 종교 발상지에 가서 어떤 사유와 인식, 활동이 왜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죠. 지구촌 곳곳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체험과 국제기구, 시민 단체, 기업, 연구소, 싱크 탱크에서의 경험... 그런 경험도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일 거예요. 앞으로 대학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 아닌가 해요.

1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혁신적인 시도들이 하나의 관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설립자로서 구성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전환의 시대’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와 기회, 기회와 위기 요인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죠. 인간의 생존과 실존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어요. 미래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문명사적 국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후마 설립 초에도 그런 위기의 조짐이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와 인간, 새로운 시민성이란 큰 주제를 놓고 고민했지요. ‘문명사 성찰’.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후마 교육의 또 다른 근간이었죠. 그 정신은 이어가되, 변해야 할 것은 변해야 합니다.

변화의 핵심엔 사유와 인식의 지평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사회, 현대문명이 초래한 경계와 환원, 기계론적 사고가 초래한 다양한 대립과 충돌 문제예요. 그런 사유의 한계는 이제 극복돼야 하죠. ‘융합적 사유’, ‘전일적 사유’에 대한 깊은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면에 계속 →